

1999월간양계 선정 10대 뉴스

- 홍보부 -

백세미 불법대상 진정서 제출

본회는 연초 불법 종란, 병아리(속칭 백세미) 생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백세미 생산은 엄연한 불법이며 질병확산의 우려를 안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농림부는 회신을 통해 백세미 생산 농가에 대해 규제 등의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질병 전파 및 육계시장 교란우려가 있지만 백세미를 이용한 삼계탕 등 식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으로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다하더라도 산업화의 측면에서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백세미 생산 유통근절 또는 산업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본회는 물론 각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오에 따라 본회는 강력히 백세미의 생산이 불법임을 담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즉각적으로 제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정부차원에서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구조조정기금 600억 중, 하림 200억 지원 받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설립된 기업구조조정기금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산업은행의 한강구조조정기금의 자산 운용회사인 스커더 캠퍼인베스먼트사는 (주)하림에 대해서 200억원어치의 CB(전환사채)를 인수하고 투자한 바 있다. 참고로 기업구조조정기금은 산업은행 외 국내 25개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것으로 재정 규모는 136천억원이었다.

병아리 생산 및 종란 입란실적 조사사업 착수

본회는 농림부와 함께 종계·부화장에서 병아리생산 및 종란입식 실적을 조사 홍보사업을 실시, 농가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육용종계 4개 생산업소, 육용실용계 58개 생산업소, 산란종계 1개 생산업소, 산란실용계 12개 생산업소 등 전체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총 75개소의 종계·부화장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필요재원 1천7백여만원은 자조금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조사사업은 오는 2월 첫 월요일이 있는 주간부터 4주간 시험조사하고 3월부터는 본 조사에 착수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사업으로 정착하고 있다.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 요령 이행강화

농림부는 각종 수송차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뉴캐슬병, 가금티푸스 등)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축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요령'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관련 농가 및 업체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따라서 농가는 농장내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소독실시 증명서'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농장내 출입을 거부해야 하며 세척·소독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농림부(축산위생과) 또는 시·도(축산과)에 신고토록 하여 방역을 대폭 강화하였다.

중국산 가금류 수입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안) 의견수렴 마쳐

농림부는 지난 1997년말 중국에 가금인플랜자가 발생한후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나 중국당국이 무역역조 시정을 요구하며 가금육 수입재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

함에 따라 관계자를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을 방문해 질병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으며, 가금육(중국산)의 수입위생조건(안)을 발표하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 중국산가금류 수입금지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가금육이 수입개방될 경우 육계업계는 물론 오리업계에까지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도축장이 200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적용업소로 의무적용 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공장에 적용해오고 있는 HACCP는 작업장의 작업과정에서 사람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 중 공중위생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점관리해 안전축산품을 생산하는 최신의 선진적 위생관리기법으로 미국 등 선진 축산국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유와 (주)롯데햄·롯데우유의 발효유가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적용업소로 지정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 및 국립수의검역원 조류질병과 폐쇄조치 검토 철회 요청

본회는 정부가 제2차 정부구조조정 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대전지소와 국립수의검역원 조류질병과를 폐쇄조치하고 일부 업무를 타부에 이관코자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한 불가방침을 농림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폐쇄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본회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간 양계인들이 닭사양관리에 있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대전지소와 수의검역원 조류질병과의 폐쇄조치는 전 양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정부는 양계인의 뜻을 받아들여 현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중 개정령 공포

농림부는 본회 및 관련기관의 의견조치를 거쳐 입법에고하였던 가축전염병예방법중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 종류를 국제기준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축소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는 관리수의사를 두게하는 의무규정을 제정하여 농가자율방역을 유도하였다. 또한 종축장 등 가축집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와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을 명하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등 완화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령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닭의 경우 1종전염병은 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이며, 2종전염병으로는 추백리코 규

정되었으며, 기타 제외된 질병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2종에 준하여 관리하는 질병으로 명문화하였다.

사료가격 IMF 이전 수준 유지

IMF이후 40%이상 올랐던 사료값이 그 동안 환율안정과 사료업계의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사료업계는 지난해 4월부터 9차례에 걸쳐 변화 때마다 사료값 인하 요인을 반영, 사료값을 인하여 왔는데 지난 3월 22일자로 평균 2.2%를 인하함으로써 사료값은 IMF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사료업계가 이처럼 사료 값을 9차례에 걸쳐 인하할 수 있었던 것은 환율이 안정된 데도 원인이 있지만, 환차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료업계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 노력에 기인된 것도 적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구축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생산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15개국 150여개 업체가 참가하여 8만3천여명의 참관객을 동원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 박람회는 본회와 낙농육우, 양돈, 가자재협회가 공동주최하여 개최되었는데 축종간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든 모범적인 행사로 승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양계**